

## 동물명 관용표현의 의미 교육 연구 - 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김정아\* · 티띠왓 앙쿨\*\*

### 〈 목 차 〉

1. 들머리
2. 연구 배경 및 절차
3. 한·태 동물 관용표현의 의미 특성
4. 동물명 관용표현의 의미 교육 방안
5. 마무리

### 1. 들머리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와 태국어의 동물명 관용표현을 대조·분석하여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 (1) ㄱ. 관광하고 경품 타고 ‘꿩 먹고 알 먹기’〈경인일보 2017. 3. 13.〉  
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져’...버핏, 전력社 투자 실패〈연합뉴스 2014. 4. 30.〉  
ㄷ. ‘정글’ 호랑이 감독 박세리 X 귀여운 허세왕 허훈, 달콤살벌 케미〈뉴스엔 2020. 9. 6.〉

\* 제1저자, 말라야국립대학교 아시아·유럽언어학과, 객원교수, piscean00@hanmail.net

\*\* 제2저자,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titiwatangkula@gmail.com

(1)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뉴스 기사의 제목이다. (1ㄱ)에서는 관광객이 관광도 하고 선물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설명하기 위해 ‘핑 먹고 알 먹기’라는 관용표현을 사용했다. (1ㄴ)은 투자 전문가 워런 버핏의 실수를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 (1ㄷ)에서는 ‘호랑이’를 통해 엄격하고 무서운 감독자를 상상할 수 있다. 한국어 화자들은 (1ㄱ-ㄷ)의 관용표현들을 통해서 기사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지만 한국어 학습자들은 그렇지 않다. 관용표현은 두 단어 이상이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갖는 표현으로 표면적 의미를 통해서는 문맥에서 실현되는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들은 관용표현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더라도 쉽게 이해하기 힘든 표현이 아닐 수 없다.<sup>1)</sup> 그렇지만 관용표현을 잘 사용하는 것은 유창함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이에 연구에서는 관용표현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유창하게 관용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학습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sup>2)</sup> 특히 동물명은 초급 단계에서 제시되는 어휘로 학습자들이 특별한 어려움 없이 학습할 수 있는 친숙한 어휘이다.<sup>3)</sup> 이런 동물명은 많은 언어에서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관련된 많은 관용표현이 통용되고 있다. 또한 한국어에서도 동물명이 포함된 관용표현은 상당히 많으며 자주 사용된다.<sup>4)</sup> 동물명 관용표현을 학습하는 것은 한국어의 어휘를 학습하는 것과 함께 서로의 사회·문화

1) 중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오은화(2019: 90-91)의 조사에 따르면 학습하기에 가장 어려운 어휘 종류는 관용표현이었고(조사 대상자 60%), 어휘 교재가 개발된다면 추가로 공부하고 싶은 어휘도 관용표현(조사 대상자 80%)이라고 한다.

2) 이 연구에서 관용표현은 동물명이 포함된 구, 문장, 속담 등을 모두 포함하기로 한다. 문금현(1999)에서는 관용표현을 정의에 따라 광의의 관용표현과 협의의 관용표현으로 나누었다. 광의의 관용표현은 관용적 의미를 갖고 관습적으로 쓰이는 표현을 말하며, 협의의 관용표현은 언어 내적 조건(의미, 수사, 형태·통사적 조건)과 언어 외적 조건(대중성, 광역성, 지속성, 역사성)을 갖춘 표현을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광의의 관용표현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3) 한송화(2015)와 김중섭(2017)에서 동물명은 초급(1-2급)에서 제시된다.

4) 인간, 동물, 사물이 각각의 대상을 의미하는 표현을 분석한 결과, 동물을 통해서 인간과 사물을 의미하는 표현이 가장 많다(김한샘 2011: 47-50).

를 비교해 보고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어 교육을 위한 관용표현 연구는 교육용 관용표현 선정 연구, 교재의 관용표현 분석 연구, 관용표현 교수 방법 연구가 있었다. 한국어 교육을 위한 관용표현 목록 선정 연구에서 문금현(1998)은 형식적인 유형, 사용 빈도, 의미의 투명성 정도, 외국인의 인지도, 구어와 문어의 조화 등을 기준으로 교육용 관용표현을 선정하고 단계별 교수 방법을 제시했다. 장동은(2009), 조혜인(2011)의 연구에서는 구어 말뭉치 분석을 통해서 구어에서 나타나는 관용표현의 특성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차별성을 갖는다. 김현진(2015)에서도 단계별 수준을 고려한 관용표현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어 교재에 공통적으로 제시된 150개의 관용표현을 선정하고 사용빈도, 구성요소의 난이도, 의미 투명도에 따라 초급과 중급, 고급 단계의 관용표현을 구분하여 제시했다. 특히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교육용 관용표현 선정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논의이다.

한국어 교재의 관용표현 분석 연구는 교수 방법을 제안하기 위한 예비적 연구로 이루어졌다. 유덕자(1997), 김몽·이충우·김지은(2015), 공하림·손혜진(2020)는 통합 교재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수법을 제안했다. 최근의 연구인 공하림·손혜진(2020)에서는 문화 리터러시(cultural literacy) 관점에서 교재 분석하였다. 리터러시는 기능적 차원에서 문화에 대한 지식을 구성하고 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일컫는다. 이 관점에서 5종의 한국어 교재를 관용표현을 이해, 사용, 사회 및 문화 간의 연결을 분석하여 ‘사용’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것을 확인했다.

교수 방법에 대한 논의에서 신희삼(2013)은 관용표현은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과 함께 한국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 자료이며, 단계, 피드백, 학습자의 흥미, 오류, 게임 등을 고려하여 관용표현을 교육해야 한다고 했다. 유해준·손경애(2012)는 신체어 ‘손’ 관용표현을 중국어와 대조하여 형태와 의미를 고려한 교육 방법을 제안했다. 형태와 의미가 유사한 것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작하고 점차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가 유사하거나

다른 관용표현, 최종적으로 한국어에만 있는 관용표현을 교육한다면 효율적인 관용표현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정유남·최창원(2020)은 SIOP (The Sheltered Instruction Observation Protocol) 모델을 적용하여 감정 표현 관용어를 교육하는 방법을 제안했는데, SIOP는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텍스트를 제시하여 학습자가 배워야 할 내용과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언어 내용과 이해, 습득을 동시에 향상 시킬 수 있는 학습 모델이다. 특히 감정 표현 관용표현은 감정 유발 요소, 시공간, 관계, 친밀도, 담화 요소를 고려해서 이해하고 표현해야 하므로 제시하는 텍스트와 상황, 학습 내용 등이 긴밀하게 연관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의미 영역에 맞는 교육 모델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근희(2018)는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관용표현을 분석하고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수 방법을 제안했다.

동물을 주제로 한 관용표현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정아(2015)는 동물명이 포함된 한국어 관용표현을 개념적 은유로 분석하여, 동물의 모습, 행동, 관계에 의해 개념화된다는 것을 설명했다. 유희정·최경봉(2020)은 동물명에 비해 주목 받지 못했던 뿔, 더듬이, 날개와 같은 동물 부위명의 비유적 의미에 초점을 두고 동물부위명의 의미가 관계망 속에서 확장되는 양상과 담화 맥락에서 확장되는 양상을 설명하였다. 김동국·이상률(2015)은 동물명이 포함된 관용표현을 구성요소의 난이도와 관용성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 의미별로 교수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정경은(2009)은 영어의 관용표현에서 사람이 지닌 특성이 동물의 특성으로 개념화하는 체계를 설명하였고, 이미영(2012)은 영어와 한국어의 동물명 관용표현을 비교하여 존재의 대연쇄 은유(Great Chain of being metaphor)를 통해 설명했다. 즉 잘 이해되는 동물의 관점에서 인간의 특성을 이해하고 더 잘 이해되는 인간의 특성을 통해 이해하기 어려운 무생물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임지선(2012)에서는 정치, 종교,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어와 태국어의 동물명 관용표현을 대조·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한국어 교육에서 관용표현 교육의 가치, 교육 대상 목록

선정의 중요성, 실험적인 교수 방법을 제안하는 중요한 논의였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태국어와의 대조를 통해서 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관용표현을 교육할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동물명이라는 친숙한 단어를 통해서 확장된 의미를 이해하고 관용표현을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것이다. 한국어와 태국어의 대조 연구를 통해서 두 언어에서 나타나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히고 이를 교육에 활용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연구 방법과 절차를 기술하고 3장에서는 한·태 동물명 관용표현의 의미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4장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단계별 언어 능력을 분석하고 동물명 관용표현의 교수 방법을 단계별로 제시한다. 5장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고, 남은 문제를 제시한다.

## 2. 연구 배경 및 절차

### 2.1. 관용표현의 개념과 범위

관용표현은 그 자체로 역사성과 문화성을 함축하고 있는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다. 전통적인 언어관에서 관용표현은 형태적으로 굳어져 제3의 의미로 사용되는 일탈된 언어 형식으로 보았다. 반면 인지언어학에서는 다양한 비유적 의미가 관용표현의 의미를 구성하고 있고 때로는 언어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관용표현은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개념으로 정의되고 범위가 설정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용표현의 연구에서 ‘관용구’, ‘관용어’, ‘이디엄’, ‘숙어’, ‘관용표현’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다.<sup>5)</sup> 용어나 개념 정의는 조금씩 다

5) ㄱ. 이디엄: 천시권(1987)

ㄴ. 숙어: 김문창(1974), 심재기(1986), 안경화(1986)

ㄷ. 관용어: 박영순(1985), 강위규(1999), 심지연(2009), 황화상(2011)

ㄹ. 관용구: 최지훈(2010), 백석원(2011)

르지만 구성요소가 관습적으로 결합하여 고정된 형태로 쓰이며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일치한다. 즉 형태적 고정성과 의미의 특수성은 관용표현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Nunberg et al.(1994: 492-493)는 관용표현의 중요한 자질의 하나로 부동성(inflexibility)을 꼽았는데 부동성은 관용표현이 자유로운 결합 표현과는 다르게 제한된 통사적인 틀이나 구조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관용표현은 관습적인 의미와 함께 고정적인 형식으로 나타난다는 특징 때문에 범위가 상당히 유연할 수 있다. 민현식(2003)에서는 관용어구, 속담, 수수께끼, 설화, 유행담 등을 관용표현에 포함시켰고 문금현(1999)에서도 상용 구절, 격언, 금기담, 간접 화행 표현, 인사말, 상투표현 등을 관용표현에 포함시킨 바 있다.<sup>6)</sup> 이렇게 폭넓은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은 관용표현이 갖는 비유적인 의미 해석의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2) ㄱ. 맛이 가다.

ㄴ. 뚜껑을 열다.

ㄷ. 국수를 먹(이)다

(2ㄱ-ㄷ)의 의미를 보면 구성요소의 비유적인 의미가 관용표현의 의미에 기여하는 경우와 표현 전체가 비유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또 언어 외적인 요인이 관용표현의 의미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다.

(2ㄱ)에서 ‘가다’는 현재의 위치에서 떨어진 상태로 이해된다. 따라서 ‘맛이 가다’는 음식이 원래의 맛에서 멀어지는, ‘음식의 맛이 상하다’의 의미로 해석된다.<sup>7)</sup> (2ㄴ) ‘뚜껑을 열다’는 ‘사물의 내용이나 결과 따위를 보다’라는

ㄱ. 관용표현: 이상역(1993), 양영희(1995), 문금현(1999), 박만규(2002), 민현식(2003), 박진호(2003), 이동현(2007), 한정환(2010)

6) 문금현(1999)에서는 광의의 관용표현과 협의의 관용표현으로 구분하여 광의의 관용표현에 다양한 유형의 관용표현을 하위 분류하였고, 민현식(2003)은 전통 관용표현과 유행 관용표현으로 구분하여 속담, 수수께끼, 금기담, 격언 등을 하위 분류하였다.

7) ‘맛(이) 가다’는 ‘음식의 맛이 상하다’ 외에도 속되게 ‘어떤 사람이 정상이 아닌 듯하다’의 의미로도 통용된다.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뚜껑을 여는 행위와 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서로 유사한 경험이며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사물의 내용이나 결과 따위를 보다’라는 의미로 이해하게 된다. (2ㄷ)는 ‘결혼식을 하다’는 의미로 국수와 먹는 행위로는 유추하기 어려운 표현이다. 결혼식을 치를 때 국수를 먹던 전통에서 기원한 표현으로 (2ㄷ)은 (2ㄱ)과 (2ㄴ)과는 다른 의미 획득 과정을 거친다. 언어 외적인 요인이 관용표현의 의미 해석에 필요한 경우이다.<sup>8)</sup> 관용표현의 의미에 관여하는 언어 외적인 요인은 언어 공동체에서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관습적 심상(conventional mental image)’ 및 관련 지식 그리고 개념적 은유와 환유가 연결고리가 되어 준다(강병창 2011: 85).<sup>9)</sup>

이렇듯 관용표현은 고정된 형태로 사용되며 폭넓은 유형을 보이며, 일상적인 지식과 관습, 사고 방식으로 인해 의미가 생성되고 해석되는 언어 표현이다. 이 연구에서도 관용표현은 고정적인 형식을 가지면서 비유적 해석이 필요한 언어 표현으로 볼 것이다.

우리가 관용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글자 그대로의 표현으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생각을 빠르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달 내용에 대한 책임이나 부담을 줄이고 상황을 완곡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임지룡 2018: 234-235). 관용표현의 형식과 의미와 기능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유용한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관용표현은 한국어 교육에서도 학습자의 언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교육해야 할 내용이 된다. 유창하고 자연스러운 한국어 사용을 위해서 관용표현의 특성을 알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8) 송현주(2011)에서는 언어의 구조와 의미가 서로 동기화(motivation)되어 있다고 했다. 언어의 의미와 구조 사이의 동기화 요인은 언어 내적인 요인과 언어 외적인 요인이 있다. 특히 관용표현은 사회와 문화, 역사적인 배경이 언어 외적인 요인으로 작용된다.

9)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는 경험에 의해 구축된 근원영역(source domain)에서부터 새로운 경험의 영역인 목표영역(target domain)으로 체계적인 인지 사상(cognitive mapping)이고 개념적 환유(conceptual metonymy)는 한 실재물의 이름을 인접한 다른 실재물을 지칭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임지룡 1997: 173-190 참조).

## 2.2. 연구 절차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이 될 동물명을 선정한다. 둘째, 선정한 동물명이 포함된 한국어와 태국어의 관용표현을 찾고 의미를 분석하고 대조한다. 셋째, 김중섭(2017)을 참고하여 단계별 관용표현 학습 방법을 제안하기로 한다.<sup>10)</sup> 연구 대상이 될 관용표현을 선정하기 위해 조남호(2002)를 참고하였다. 조남호(2002)는 한국어 교육을 위한 어휘 선정의 기초 작업으로 다양한 구어와 문어 텍스트에서 쓰이는 어휘를 조사한 자료이다. 조남호(2002)에서 분석한 빈도를 기준으로 이 연구에서 선정한 동물명은 다음과 같다.

(3) 개, 고양이, 호랑이, 소, 닭, 돼지, 쥐, 개미, 개구리, 곰

(3)의 동물명이 포함된 관용표현을 찾고 의미와 사용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 (4) ㄱ. 사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왕립학술원 속담·관용어사전
- ㄴ. 말뭉치: 21세기 세종계획 현대국어 형태분석 말뭉치, 스케치 엔진 말뭉치
- ㄷ. 기타: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한·태사전, 위키백과

동물명 관용표현을 추출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원에서 간행한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과 왕립학술원에서 간행한 『왕립학술원 속담·관용어사전』(이하 <왕립>)에서 키워드 검색 방법을 통해서 관용표현을 추출하였다. <표준>과 <왕립사전>은 양국의 국어원에서 발행한 국어사전이므로 정확성과 신뢰도가 모두 높아서 동물명 관용표현을 찾고 의미를 분석하는 데에 중심

---

10) 수준별 학습 능력에 대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평가 기준도 함께 참고하였다. TOPIK의 평가 기준은 김중섭(2017)과 같이 학습자의 한국어의 단계별 성취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자료로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두 자료에서 찾은 동물명 관용표현은 각각 576개와 185개였다. 관용표현에서 실현되는 동물명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네이버지식백과, 위키백과와 같은 온라인백과사전을 보조 자료로 삼았다. 또 관용표현의 정확한 번역을 위해서 네이버 『한·태사전』을 이용하였다. 이후 추출한 관용표현의 사용 패턴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말뭉치를 활용하여 용례를 분석하였다. 한국어 관용표현은 『21세기 세종계획 현대 국어 형태 분석 말뭉치』(이하 <세종>)를 사용하였고 태국어는 『스케치 엔진 말뭉치』(이하 <스케치>)<sup>11)</sup>에서 실제 사용된 태국어 동물 어휘의 용례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용례는 의미 분석 오류가 없는 이상 <표준>과 <왕립>에서의 뜻풀이 및 용례의 원문을 존중하여 그대로 사용하였음을 미리 밝힌다.<sup>12)</sup> 이상의 자료를 통해서 태국어와 한국어의 동물명 관용표현의 의미 특성을 분석하였다. 동물마다 연상되는 의미와 관용표현에서 실현되는 의미를 분석하고 일반적인 의미와 한국어 태국어에서 특수하게 나타나는 동물에 대해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초급, 중급, 고급 단계 학습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을 제안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김중섭(2017)의 총괄 목표를 참고하기로 하였다. 그 이유는 학습자의 종합적인 한국어 능력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관용표현은 일반적인 어휘와는 달리 의미가 생성된 배경이 있다. 그것은 개별 단어의 의미가 비유적으로 확장되는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사회·역사적인 배경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관용표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가진 전반적인 한국어 능력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김중섭(2017)의 총괄 목표에는 단계별로 학습자들이 학습해야 할

11) 태국어의 사용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2003년부터 현재까지 개발한 용례 검색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Lexical Computing이라는 영국의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90개 이상 언어 자료를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출처의 용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실제성 있는 용례를 확인하기에 용이하다.

12) 실제 사용 양상을 보이기 위해 일부 용례를 뉴스 검색에서 인용하였다.

과제·기능, 주제, 언어 능력과 문화에 대한 기준을 잘 정립해 놓은 자료이다. 이를 참고하여 초급과 중급, 고급 단계에서 학습자들에게 제시할 교육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sup>13)</sup>

### 3. 한·태 동물 관용표현의 의미 특성

관용표현은 사회·문화적 맥락과 함께 역사적인 사실도 함축하고 있는 흥미로운 표현이지만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이해하고 표현하기 힘든 내용이고 교사들에게는 교육하기 힘든 내용이다.<sup>14)</sup> 하지만 관용표현을 익숙하게 사용한다면 한국어 화자와 같은 자연스러운 언어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동물명 관용표현은 동물명이 관용표현의 의미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동물명으로부터 관용표현의 의미를 추론하게 하는 활동은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된다. 다만 언어에 따라 통용되는 이미지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학습자의 모어에서 통용되는 이미지와 비교를 통해 한국어 관용표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공하림·손혜진 2020: 125). 관용표현에서 동물의 의미는 외향적인 특성과 성격, 인간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원형의미에서 확장의미로 의미가 확장된다. 관찰자인 인간의 관점에서 1차적 관찰 결과가 ‘생김새’이고 동물과 공생하면서 파악한 ‘행동’은 2차적 관찰 결과가 된다. 마지막으로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 의미가 확장될 수 있다(김정아 2015: 158). 예컨대, ‘닭’은 움직임이 민첩하지 못하고 분주하여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고 촌스러운 생김새와 행동이 강조된다. 또 ‘개구리’는 다른 동물들에 비해 성장 과정에서 외모가 크게 변하는 특성이 부각 되기도 한다. 연구대상으

13) 김중섭(2017)의 총괄 목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4장(4.1.)에서 제시하고 논의하도록 하겠다.

14) Gibbs(1994)는 속어 표현과 진부한 표현, 관용적 표현은 좋은 의도를 지닌 많은 영어 교사의 최대의 적이라고 했고(나익주 역 2002: 352), Sorling(1988: 281)도 관용표현은 사전에서 비체계적인 부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가르치기 상당히 어렵다고 했다.

로 선정한 10가지 동물들은 공통적인 의미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장에서는 의미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호랑이, 소, 닭, 돼지, 곰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sup>15)</sup>

### ① 호랑이

호랑이는 인간의 생존에 위협을 끼치는 위협하고 두려운 동물, 신과 같은 동물로 여겼다. 그래서 두려운 대상, 무서운 대상으로 여기지만, 극복해야 할 대상이므로 풍자되기도 했다. 하지만 가장 흔히 인식되는 호랑이의 이미지는 권위 있고 두려운 동물이다. 한국어와 태국어의 관용표현을 분석한 결과 호랑이에 대한 권위와 두려움의 의미는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태국어 관용표현에서 호랑이는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과 권력을 부정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의미로 인식되기도 한다. 태국어에서 더 다양한 모습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호랑이에 대한 한·태 관용표현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5) ㄱ. 백범은 **호랑이** 같은 기상만 가진 분이 아니다. 가난한 동포와 아이들에게 존 자애로운 아버지였다. <오마이뉴스 2019. 3. 20.>

ㄴ. 교직 생활 35년 차인 김 교장도 한때 '**호랑이 선생님**'으로 불렸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자상하고 친근한 선생님이 됐다. <머니투데이 2018. 5. 13.>

ㄷ. '정글' **호랑이 감독** 박세리 X 귀여운 허세王 허훈, 달콤살벌 케미. <뉴스엔 2020. 9. 6.>

(6) ㄱ. ศาสตราจารย์พิเศษ อินทร์ จันทรสถิตย (หลวงอึ้งครศรีกิจการ)หนึ่งในสาม **เสือแห่ง** เกษตร  
:สุธาวา และพจนานางาน เกษตรและการศึกษาทางการเกษตรของประเทศไทย

(인트리 째사뿃 명예 교수는 태국의 농업 교육과 개발을 촉진하는 **호랑**

15)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10가지 동물 중 '개'의 의미가 한국어와 태국어에서 가장 비슷하게 나타났다. 관용표현에서 개는 행동이 매우 부정적이고, 냄새를 잘 맡고, 인간에게 충성심이 있는 동물로 묘사된다. 또 '고양이'의 의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움직임이 조심스럽고 쥐와 관계가 나쁜 것으로 나타난다. 그 밖에 쥐와 개구리, 개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차이를 보이는 다섯 가지 동물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8)의 예를 보면 ‘소’는 (8ㄱ), (9)와 같이 소중한 재산이다. 또 다른 한국어 예를 살펴보면 (8ㄴ)과 같이 소는 큰 눈을 가진 순한 동물과 (8ㄷ)의 힘이 센 사람, (8ㄹ)과 같이 영리하지 못하고 미련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한국어 관용표현에서 소는 재산, 순수함, 힘이 셈이라는 긍정적인 의미와 영리하지 못하고 미련한 사람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10)의 예를 보면 태국어 관용표현에서 소는 다른 의미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ㄱ. “ฉลาดที่สุด”... ก็สามารถ “เป็นควาย” ได้ง่าย เพียงเพราะ .. คำว่า “เชื่อใจ

(신뢰 때문에 가장 똑똑한 자도 물소가 될 수 있다.)

ㄴ. พบรวมขาคนแก่ (막된 뿔이 빠져진 소들)

ㄷ. ความซื่อที่หลอนทิวชน สนเหมือน วัวหลงหะ

(니가 만들었던 죄 때문에 너는 등에 빠끔히 상처를 입은 소와 같다)

(10ㄱ)에서는 ‘소’는 ‘현명하지 못한 사람’이다. 태국어 관용표현에서 소는 덩치가 크고 행동이 느리고 많이 먹고 힘만 센 사람으로 인식되며 이것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다. 한국어 관용표현에서 ‘소’는 힘이 세고 느리지만 우직한 모습이 함께 부각되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태국어에서는 부정적인 의미가 현저하게 인식된다. (10ㄴ)에서 소는 ‘싸움을 즐기는 난폭한 사람’, (10ㄷ)에서 소는 ‘잘못을 저질러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 즉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나타낸다.

요컨대 태국어에서는 ‘소’에 대한 더 다양한 개념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단순화하여 전달할 필요가 있다. 가령, ‘소’는 외형적인 면에서 ‘큰 눈’은 순수한 모습을 의미하고, 행동에 대한 평가는 ‘순하고’, ‘우직하고’, ‘영리하지 않은’ 사람의 특성으로 설명해야 한다. 반면 난폭하거나 당황하는 사람의 모습으로는 의미가 확장되지 않음을 지적해야 한다.

<표 2> 한·태 관용표현에서 ‘소’의 의미

	한국어	태국어
차이점	근면하다, 성실하다	난폭하다, 잘못을 저지른다,
공통점	덩치가 크다, 미련하다, 힘이 세다, 재산이다, 고집이 있다	

③ 닭

닭은 개, 고양이, 소, 돼지와 함께 집안에서 기는 가축의 하나로 한국에서는 친숙한 동물이다. 하지만 특유의 걸음걸이와 행동, 조류이지만 나는 기능을 상실한 특성들 때문에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 (11) ㄱ. 집 나온 **촌닭** 같아. 옷도 자세히 보니까 스커트가 낡아서 허영계 보풀이 일었고, 손도 너무 커.
- ㄴ. 우리는 흔히 ‘**닭대가리**’라며 다른 이를 놀린다. <제주일보 2015. 11. 2.>
- ㄷ. 그 아이는 엄마에게 **쫓르르** 달려가더니 **닭 발 그리듯** 그런 영성함 그림을 자랑스럽게 펼쳐 보였다.
- ㄹ. 그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싸움닭**으로,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그와 부딪치지 않으려고 한다.
- ㅁ. 그는 언제나 이 사람 저 사람 **집적거리며 닭 싸우듯** 싸우고 다닌다.
- ㅂ. 뜨는 페이스북업...은행이 ‘**소 닭 보듯**’ 하는 이유 <비즈니스스위치 2020. 9. 14.>

- (12) ㄱ. **พื้ยาก** **โกรก** **นก** **ของ** **จึง** **ไม่** **สนใจ**  
 (난 가난하고 **논닭**이기 때문에 그녀가 관심이 없다.)
- ㄴ. **พื้ก** **นก** **จะ** **ตี** **กษาน** **ให้** **ก่อน** **จะ** **ได้** **ไม่** **“ปลด** **ยกร** **”** **กลาง** **อากาศ**  
 (사회자는 좀 더 준비를 잘해야 중계 중에 **닭**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 ㄷ. **โกรก** **ของ** **ขอ** **แะ** **ขอ** **ประ** **สพ** **การ** **มณ** **ณ** **หอย** **ชนิด**  
 (**어린 닭**은 부족한 경험을 공유하겠다.)
- ㄹ. **เขียน** **แบบ** **โกรก** **เขียน** (**닭**이 **먹**이를 **찾으**려고 **발**로 **땅**을 **헤집**듯이 **쓰**기)

(11ㄱ)과 (12ㄱ)에서 닭은 세련되지 못하고 촌스러운 사람으로 인식해 ‘촌닭’이나 ‘논닭’으로 표현하고 있다.<sup>16)</sup> 또 (11ㄴ)과 (12ㄴ, ㄷ)에서 닭은 어리석

고 머리가 나쁜 사람, 혹은 경험이 부족해 미숙한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다. (11ㄷ)과 (12ㄷ)에서는 걸음걸이와 발자국이 질서정연하지 못한 것이 부각되어 어지럽게 써 놓은 글씨나 그림을 의미한다. (11ㄷ, ㄱ)에서는 닭은 싸움을 자주 하고 소란스럽게 싸우는 모습이 강조된다. (11ㄱ)에서는 서로 무심하게 쳐다보는 행동을 통해 관심 없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한국에서 닭은 주로 행동에 현저함이 있다. 하지만 (13)의 예를 보면 태국어 관용표현에서 닭은 걸모습이 부각된다.

- (13) ㄱ. สิ้นปีกบวม มีหนองที่ตอมทอนซิล  
 (닭의 혀(목젖) 염증과 급성 편도염을 일으킨다.)  
 ㄴ. เขาอกเหมือนอกไก่ หลงแฉนเหมือนเป็ด  
 (닭 가슴이 같고, 오리 등처럼 굽는 그 사람)

(13ㄱ, ㄴ)의 태국어의 예에서는 닭의 외모가 부각되는 예이다. (13ㄱ)은 한국어의 ‘목젖’에 해당하는 태국어가 ‘닭의 혀’로 표현된다. (13ㄴ)에서 ‘닭 가슴’은 복장(복)이 볼거져 나온 사람을 비유적으로 지시한다. 한국어에서는 닭은 움직이는 모습, 싸우는 행동, 영리하지 못한 속성과 행동에 초점을 둔 표현이 많다. 반면 태국어에서는 외형에 초점을 둔 표현이 흔히 사용된다.

〈표 3〉 한·태 관용표현에서 ‘닭’의 의미

	한국어	태국어
차이점	싸운다	모습(닭 가슴, 닭의 혀)
공통점	촌스럽다, 멍청하다, 건성으로 행동한다, 약하다	

16) 세련되지 못하고 촌스러운 사람을 한국어에서는 ‘촌닭’, 태국어에서는 ‘논닭’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표현에서 ‘촌’과 ‘논’으로 인해 ‘세련되지 못하고 촌스러운’ 의미를 유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닭’ 특유의 행동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도시닭’이나 ‘촌개’, ‘촌돼지’, ‘촌호랑이’ 등의 표현이 통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을 때 더욱 그러하다. 즉, ‘닭’에 대한 배경 지식이 ‘촌닭’과 ‘논닭’의 의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7) 복장(복): 가슴 한복판에 세로로 길쭉하게 있는 납작한 뼈(표준국어대사전)

④ 돼지

가축의 하나인 돼지도 다양한 의미로 관용표현에서 나타난다. 특히 똥똥한 외모, 깨끗하지 못한 생활 양식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 (14) ㄱ. 친구가 저더러 **돼지**라고 놀려서 살을 빼려고 해요.  
 ㄴ. 동생도 안 주고 **꿀돼지**처럼 혼자만 먹느냐?  
 ㄷ. 그는 친구들에게 **똥돼지**라고 놀림을 받으면서도 군것질을 멈추지 않았다.  
 ㄹ. 2007년 한국 여자 그린은 **꽃돼지**들이 점령한다.  
 ㄹ. 단채로 노래방에 들어가 **돼지 먹마는 소리**로 가요 열창도 뭐 사는 재미 가운데 하나겠지만, 그래도 약기 하나쯤 배우고 익히신다면 좋겠다. <경향신문 2010. 8. 4.>  
 ㅂ. 반드시 정치 청문회 아닌 정책 청문회가 돼야 한다. 또다시 갑질·호통·발목잡기 등으로 '**돼지에 진주**'가 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문화일보 2016. 5. 20.>  
 ㅅ. **돼지엄마**라 불리는 분들은 명문대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돼지엄마를 따르는 학부모분들도 많습니다.

- (15) ㄱ. ตอนเด็กถูกเพื่อนล้อว่า**หมู**จนมาตลอดคะ  
 (어렸을 때 친구가 저를 항상 **똥돼지**라고 놀리며, 괴롭혔다.)  
 ㄴ. อยากรจะเปลี่ยนตัวเองจากสาว**หมู**ตอน มาเป็นสาวสวยหุ่นดี  
 (거세 **돼지** 소녀를 매끈한 소녀의 모습으로 바꾸고 싶다.)  
 ㄷ. เปลี่ยน **ขาหมู** เป็นขาสวย ขาเรียวเล็กลงเห็นผลภายใน 1 กระป๋อง.  
 (**돼지 다리**(족발)를 예쁜 다리로 바꿔 준다. 1개만 써 보면 다리 라인을 효과적으로 줄여 준다.)

한국어와 태국어에서 돼지는 똥똥한 외모를 현저하게 여긴다. (14ㄱ-ㄹ)의 '돼지', '꿀돼지', '똥돼지'는 모두 똥똥한 외모를 강조했고 '꽃돼지'는 똥똥하지만 귀여운 외모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태국어에서도 돼지는 살이 찐 외형이 강조되는데, (15ㄱ)의 똥돼지와 거세하여 살이 많이 찐 돼지의

모습을 강조한 ‘거세 돼지’는 모두 외형에 집중한 표현이다. (15ㄷ)에서도 외형을 강조하여 ‘돼지 다리’는 굵고 못생긴 다리를 비유적으로 이른다. 결국 뚱뚱하고 외모가 수려하지 못하다는 것이 부각된다. 또 한국어에서 (14ㄱ)의 ‘돼지 먹 따는 소리’와 같이 돼지의 시끄러운 소리나 (14ㄴ)과 같이 외모가 나쁜 것은 물론이고 생활 양식이 지저분한 것도 강조된다. (14ㄷ)의 ‘돼지 엄마’는 교육열이 매우 높은 엄마를 이르는 말로 돼지가 많은 새끼를 데리고 다는 모습을 비유한 표현이다. 반면 태국어 관용표현에서 ‘돼지’는 또 다른 의미 확장 양상을 보인다.

(16) ㄱ. ทีมจากแอฟริกาคงไม่เป็นหมูสนาม

(아프리카 팀은 경기장 돼지가 아닌 것 같다.)

ㄴ. ไมโครซอฟท์เสนอ “แพ็คเกจราคาหวานหมู”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는 달콤한 돼지의 패키지를 제안하였다.)

ㄷ. ในวงการกีฬาหากคู่ต่อสู้ฝีมือดีตามากจะถูกเรียกขานว่า “หมูในอวยง ขูข่าง”

(스포츠계에 이기거나 성공할 가능성이 적은 상대 팀은 ‘돼지, 냄비 속의 돼지’라고 한다.)

ㄹ. เลือกหาขิงข่า แล้วยาไปเลือกเจอหมูขียวทะเล

(도전자를 선택할 수 있는데, 굵은 송곳니 돼지는 뽑지 마세요.)

ㅁ. เราเราขางานอยู่แบบเดิม ดินก็จะพอกหางหมู

(우리는 예전처럼 계속 이렇게 일하면 일은 돼지 꼬리에 달라붙을 것이다.)

태국어에서 돼지는 다루거나 사냥하기 쉬운 상대로 인식한다. (16ㄱ)에서는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 (16ㄴ)에서 돼지는 하기 쉬운 일, (16ㄷ)에서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의미한다. 즉 쉽게 사냥해서 쉽게 요리할 수 있는 동물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다루기 쉬운 상대는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16ㄱ-ㄷ)에서 돼지는 다루기 쉬워서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상황이 된다. 반면 (16ㄹ)에서 송곳니가 있는 돼지는 의외로 공격이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하고, (16ㅁ)에서 돼지 꼬리는 진흙이 조금

씩 묻어 결국 많아질 수 있음을 나타내며 작은 일이 모여서 큰일이 될 수 있음을 지적인 표현이다. 돼지는 외모에서 현저함을 보이는 한국어와는 달리 태국어에서는 외모와 사람과의 관계(사냥, 조리)에 현저함이 부여된다.

〈표 4〉 한·태 관용표현에서 ‘돼지’의 의미

	한국어	태국어
차이점	시끄럽다, 자식이 많다	다루기 쉽다
공통점	똥똥하다, 탐욕스럽다, 게으르다, 지저분하다, 귀한 것과 어울리지 않는다	

### ⑤ 곰

한국어 관용표현에서 곰은 몸이 크고 움직임이 느린 동물이다. ‘소’도 이와 같은 속성을 보이지만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소와는 달리 곰은 느리고 미련한 이미지가 부각된다.

- (16) ㄱ. 그는 일 처리가 느릿느릿한 곰 같은 동료이다.  
 ㄴ. 여우 같은 여자하고는 살아도 곰 같은 여자하고는 못 산답디다.  
 ㄷ. 호랑이 흘린 ‘곰의 재주’.〈스포츠동아 2017. 9. 26.〉  
 ㄹ. 하지만 ‘곰 가재 잡듯’ 이것저것 뒤져 원고(숙제)를 넘기는 순간은 늘 뿌듯하답니다.〈교수신문 2018. 5. 21.〉
- (17) ㄱ. ตอนนี้อ้วน มีสภาพเป็นหมีแล้ว  
 (지금 똥똥해져서 곰이 된 상태이다.)  
 ㄴ. สามที่ลักษณะค่อนข้างทางหูหมีน้ำหนักอู้อยู่ด้วยแล้วบอฉัน  
 (곰 몸매를 가진 통통한 남편은 꼭 안고 싶고 같이 있을 때 따뜻하게 해 준다.)  
 ㄷ. โหมงานหนักนอนดึก2-3วันตาเลยกลายเป็นหมีเลย  
 (너무 무리해서 일하느라고 늦잠을 자기 때문에 눈 밑 부분은 곰이 되었다.)

한국어와 태국어에서 ‘곰’은 몸이 크고 움직임이 느리다. (16ㄱ)에서 곰은

동작이나 일을 하는 속도가 느린 동료를 가리키고, (16ㄴ)에서는 민감하지 않고 행동이 둔한 사람을 꿈에 비유하였다. (16ㄷ)과 (16ㄹ)에서도 꿈은 동작이 느리고 둔해서 미련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른다. (16ㄷ)의 ‘꿈의 재주’는 움직임이 둔해서 재주가 정교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16ㄹ)은 급한 상황에서도 느리게 행동하는 사람을 이른다. 한국어 관용표현에서 ‘꿈’은 대체로 느리고 둔한 행동과 미련함에 현저함을 부여한다. (17ㄱ)과 (17ㄴ)의 태국어 관용표현에서 꿈은 덩치가 크고 뚱뚱한 사람을 가리킨다. 한국어 관용표현에서 꿈은 큰 몸집이 부각되지만 태국어 관용표현에는 큰 모집과 함께 뚱뚱한 외모도 부각된다.<sup>18)</sup> (17ㄷ)은 눈 주위가 검게 변한 사람, 즉 피곤한 사람을 꿈의 눈 모양에 비유한 표현이다. 태국어 관용표현에서 꿈은 큰 몸집과 뚱뚱함, 눈 주위가 검은 것과 같이 겉모습이 강조된다. 그렇지만 한국어의 관용표현과 같이 행동이나 감각이 둔하거나 미련한 사람으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다만, 다음 (18)의 예에서 꿈은 필요 이상의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8) จากชนดินเผาทำมือ มีชื่อมาเยอะจนชาวบ้านนับเป็นเทพีทั้ง

(수제의 도자기 그릇을 많이 사서 가족들이 **꿈 꿀벌**을 먹듯이 잔소리했다)

(18)에서 꿈은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은 말을 하며 꾸짖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른다. 꿈이 꿀을 먹을 때 손을 자주 움직이는 모습에서 확장된 의미이다. 한국어 관용표현의 ‘꿈’과는 다른 의미로 인식되고 있다.

〈표 5〉 한·태 관용표현에서 ‘꿈’의 의미

	한국어	태국어
차이점	둔하다, 미련하다, 재주가 없다	잔소리가 많다, 뚱뚱하다
공통점	몸집이 크다	

18) 몸이 ‘뚱뚱함’을 한국어 관용표현에서 주로 ‘돼지’를 통해 표현하지만 태국어에서는 ‘꿈’을 통해서도 표현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관용표현에 나타난 한·태의 동물명의 의미를 보면, 공통성을 보이기도 하고 특수성을 보이기도 한다. 관용표현에 나타난 동물명의 의미가 공통적인 확장 양상을 보이는 경우 학습자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특수성을 보이는 경우 추가적인 의미 설명과 적절한 학습 단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관용표현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동물명의 의미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각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 4. 동물명 관용표현의 의미 교육 방안

##### 4.1. 한국어 학습자의 단계별 언어 능력 분석

관용표현을 학습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단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한송화(2015)에 의하면 속담과 관용표현은 대부분의 교재에서 중급에서 단원의 주제와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제시되고 있다.<sup>19)</sup> 이것은 단계별로 교재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와도 관련된 문제이다. 기초 문법 위주로 구성된 초급 단계의 교재에서는 관용표현을 학습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시 빈도가 낮고, 고급 단계에서는 구어보다는 문어 자료를 중심으로 역사, 문화, 문학 작품, 시사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관용표현의 제시 빈도가 낮다(문금현 1998: 215-216). 하지만 관용표현의 범위를 합성어, 구, 문장 층위로 설정한다면 초급 단계에서부터 고급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체계적인 관용표현 학습을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때 고려해야 할 것은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정도이다.

---

19) 김현진(2015), 공하림·손혜진(2020)의 한국어 교재 분석에서도 대부분의 교재에서 관용표현은 중급 단계에서부터 제시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표 6〉 <국제 통용> 총괄 목표

등급	총괄 목표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적인 어휘와 간단한 문장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li> <li>• 가장 기본적인 한국의 일상 생활문화를 이해하고 자국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다.</li> </ul>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 어휘와 단순한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li> <li>• 기본적인 한국의 일상 생활문화를 이해하고 자국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다.</li> </ul>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어와 구어를 구분할 수 있다.</li> <li>• 대부분의 한국 일상생활 문화와 대표적인 행동 문화, 성취 문화를 이해하고 자국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다.</li> </ul>
4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어와 문어를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고 격식과 비격식을 구분하고 사용할 수 있다.</li> <li>• 한국의 대표적인 행동 문화, 성취 문화를 이해하고 자국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다.</li> </ul>
5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식적인 맥락에서 격식을 갖추어 의사소통할 수 있다.</li> <li>• 한국의 다양한 행동 문화, 성취 문화, 대표적인 관념 문화를 이해하고 자국의 문화와 비교하여 문화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li> </ul>
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인이 즐겨 사용하는 담화·텍스트 구조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다.</li> <li>• 한국의 다양한 행동 문화, 성취 문화, 관념 문화를 이해하며 자국의 문화와 비교하여 다양성과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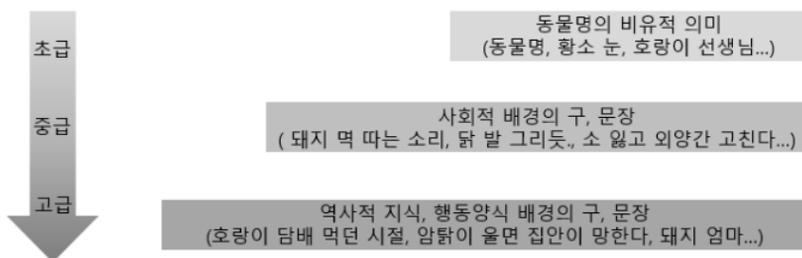
〈표 6〉은 김중섭(2017)의 총괄 목표 중 언어 사용역과 격식, 문화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초급 단계에 해당하는 〈표 6〉의 1급과 2급을 보면, 초급에서는 간단한 문장을 이해하고 일상 생활문화를 이해하는 정도이다. 사회적·문화적 맥락이 있는 관용표현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초급에서는 문법의 영향이 없는 동물명의 비유적 의미를 활용한 수업을 할 수 있다. 어휘 교육 차원에서 동물명의 비유적 쓰임을 이용한다면 중급과 고급 단계에서 이어질 관용표현 학습을 대비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표 6〉의 3급과 4급은 중급에 해당한다. 중급에서는 구어와 문어, 격식과 비격식을 구분할 수 있다. 또 한국의 대표적인 행동 문화나 성취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중급 단계에서는 현재 한국 사회의 특징적인 문화를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관용표현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태국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관용표현도 제시할 수 있다. 배경 설명 없이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급에서는 사회적 배경이 있는 구나 간단한

문법이 포함된 관용표현을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표 6〉의 5급과 6급은 고급 단계에 해당한다. 고급 단계에서는 한국인이 즐겨 사용하는 담화·텍스트 구조를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고, 관념 문화도 이해하고 자국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다소 어려운 역사, 문화적 배경이 있는 구와 문장 차원의 관용표현을 제시할 수 있다. 앞선 단계에서 학습했던 동물명의 비유적 의미와 사회적 배경의 관용표현을 기반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을 도식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동물명 관용표현의 단계별 제시 내용



〈그림 1〉은 동물명 관용표현을 단계적으로 제시할 내용을 도식화한 것이다. 관용표현을 학습하기 위해 구성요소인 동물명의 비유적 의미부터 체계적으로 학습해야 한다. 구성요소가 관용표현의 의미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림 1〉의 체계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동물명의 비유적 의미를 초급에서 제시하고 중급과 고급에서 동물명이 포함된 관용표현으로 확장하여 교육할 것을 제안한다.

#### 4.2. 동물명 관용표현의 단계별 제시 방안

##### ① 초급 단계: 동물명의 비유적 의미 교육

3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태국어와 한국어 관용표현에서 동물명은 공통

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 이런 차이는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 의한 것이며, 이를 통해 비유적인 의미도 다르게 나타난다. 인간은 새로운 사물·활동·경험 등을 가리키기 위해 새로운 표현을 만드는 대신에 기존의 용어를 전략적으로 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심 의미를 기준으로 다양한 주변 의미가 형성되게 된다(임지룡 2018: 132). 한국어와 태국어 사용자들은 공유하는 사물·활동·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동물명의 확장된 의미도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두 언어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비유적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

특히 <표 2>를 보면 초급 단계에서는 기초적인 단어와 일상적인 생활문화를 이해하는 수준에 있으므로 사회·문화적 배경이 있는 관용표현은 제시할 수 없다. 따라서 단어나 합성어, 구 위주로 동물명의 비유적 의미를 학습해야 한다.

- (18) ㄱ. 호랑이 선생님  
 ㄴ. 황소 눈  
 ㄷ. 똥돼지/꿀돼지/꽃돼지  
 ㄹ. 촌닭

(18)의 예와 같이 주로 외모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나 공통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들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호랑이는 엄격하고 위엄이 있는 동물이다. 한국어와 대조적으로 다양한 확장을 보이는 경우 의미를 제한하여 전달해야 한다. 또, 태국어에서 ‘똥똥하다’는 곰과 돼지가 모두 비유적으로 사용되지만 한국어에서는 돼지에 집중되어 있다. 그밖에 태국어 ‘논닭’은 한국어에서 ‘촌닭’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동물명의 의미와 결합 가능한 요소를 중심으로 설명해야 한다.

## ② 중급 단계: 사회적 배경이 있는 관용표현 교육

단어 차원에서 동물명의 비유적 의미를 알고 있지만 동물명 이외의 맥락을 파악해야 하는 관용표현들이 있다. 특히 사회적 배경은 현재의 한국 문화

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태국어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관용 표현을 제시한다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배경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2.의 <표 2>를 보면 중급 단계 학습자들은 한국 일상생활 문화와 대표적인 행동 문화, 성취 문화를 이해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한국인들의 일상적인 문화를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관용표현들을 제시해야 한다.

(20) ㄱ. 돼지 벽따는 소리

ㄴ. 닭 발 그리듯이

ㄷ.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

ㄹ.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ㅁ. 호랑이 새끼를 얻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

(20)의 예에서와 같이 중급 단계의 학습자들에게는 구와 문장 단위의 표현을 제시하되, 한국인들의 일상적인 문화에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제시한다. (20ㄱ-ㄴ)과 같이 노래를 하거나 글씨를 쓴 것을 평가를 하는 표현 등은 특별한 배경 설명 없이도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이다. 또 (20ㄷ-ㅁ)과 같이 태국어에서도 통용되는 관용표현을 제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어와 태국어에서 동일한 맥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 중급 단계에서 학습한 언어적 지식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속담과 같은 통사적인 제약이 있는 표현들은 이 같은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sup>20)</sup>

### ③ 고급 단계: 사회·문화·역사적 배경과 관련된 관용표현

관용표현에 나타난 동물명의 비유적 의미와 사회적 배경을 알고 있지만 한국 사회의 역사적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관용표현

20) 한국어 학습자들이 관용표현의 의미를 이해하고 배경 문화에 대한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배운 관용표현을 이용해서 한국어 문장을 만들 때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박동호·박지현 2012: 87). 따라서 관용표현 학습을 양적으로 확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학습 단계가 높아질수록 관용표현을 말하거나 글쓰기에 적용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들이다. 하지만 고급 단계의 학습자들은 어려운 배경이 있는 관용표현들의 의미도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자국의 관용표현과도 비교할 수 있다. <표 2>에서 고급 단계의 학습자들은 한국 사회의 다양한 행동 문화, 성취 문화, 관념 문화를 이해하고 자국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으며 다양성과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식이나 남녀의 인식 문제, 사회 문제 등이 반영된 관용표현을 제시할 수 있다. 또 한국어에서는 높은 빈도로 사용되지만, 태국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표현들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21) ㄱ.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ㄴ. 곰 재주 부리듯

ㄷ. 돼지엄마

ㄹ.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ㅁ. 소갈이 일하고 쥐갈이 먹어라.

(21)와 같이 한국 사회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배경 설명이 필요한 관용표현을 제시할 수 있다. (21ㄱ-ㄴ)과 같이 태국어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의미로 사용된 표현이나 (21ㄷ)과 같이 현재의 사회적 배경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제시할 수 있다. 또 (21ㄹ, ㅁ)과 같이 남녀에 대한 인식 문제, 직업이나 근면함에 대한 관념 등을 이해해야 하는 표현들을 제시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고급 단계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담화와 텍스트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므로 신문이나 뉴스 등에서 관용표현이 사용되는 양상을 파악하여 내용을 예상하거나 토론하는 수업도 진행할 수 있다.

## 5. 마무리

지금까지 동물명이 포함된 한국어와 태국어의 관용표현의 의미를 살펴보고 태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고 남은 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용표현은 그 자체로 사회·역사·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다. 따라서 관용표현은 한국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학습자들에게 전달하기에 좋은 교육 내용이다. 동시에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 학습자들에게는 어려운 내용이므로 체계적인 학습 계획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어와 태국어의 동물명 관용표현을 살펴보기 위해 조남호(2002)에서 빈도가 높은 10가지 동물을 선정하여 <표준>에서 576개, <왕립>에서 185개를 추출하였다. 의미를 확인하고 사용 패턴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종>과 <스케치>를 활용하였고 네이버 한·태 사전과 인터넷 블로그와 뉴스도 참고하였다. 이중 이 연구에서는 가장 큰 대비를 이루는 호랑이, 소, 닭, 돼지, 곰이 포함된 관용표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국어 교육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김중섭(2017)의 등급별 총괄 목표를 참고하였다.

셋째, 한국어와 태국어의 관용표현에 나타나는 동물들은 의미가 유사한 것도 있었지만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가령 호랑이의 경우 한국어 관용표현에서는 권위 있고 두려운 존재였지만 태국어의 관용표현에서 호랑이는 권위 있고 두려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사냥을 할 때의 포악함이나 포식자로서의 욕심이 반영되어 강도나 도둑, 바람둥이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렇게 한국어와 태국어에서 의미와 사용 양상에서 차이를 보이는 동물명은 학습자들이 주의를 기울여 학습해야 한다.

넷째, 관용표현은 중급 단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단어의 비유적인 의미를 학습하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체계적인 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동물명 관용표현은 동물명의 비유적 의미를 초급에서 학습하고 중급과 고급에서는 문화와 역사적 배경이 있는 관용표현을 학습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동물명이 포함된 관용표현의 의미를 대조하여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용표현 교육을 실제로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체계적인 관용표현 학습을 위해서 단어의 비유적 의미를 학습하는 것을 초급에서 시도하면서 중급과 고급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

다는 점이 의의가 있다. 다양한 주제의 관용표현의 의미를 분석하여 학습자들이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관용표현을 통해서 어휘 교육과 문화 교육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병창(2011). “독일어와 한국어 손 관용구의 비유적 의미구성 비교”, *독어교육* 50,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81-104.
- 공하람손혜진(2020). “문화 리터러시 관점에서 본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에 관한 고찰-교재 분석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2(5), 한국문화융합학회, 113-142.
- 김동국이상률(2015).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육 방안 연구-동물명이 포함된 관용표현을 중심으로-”, *언어과학* 22(1), 한국언어과학회, 49-70.
- 김몽이충우김지은(2015). “한국어 교재 분석을 통한 관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 *교육과학논문집* 21,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5-28.
- 김정아(2015). “동물명 관용표현에 나타난 개념적 은유 양상”, *국제언어문학* 32, 국제언어문학회, 149-174.
- 김정아(2017). “관용표현의 유의관계와 대립관계”, 임지룡 외. *의미관계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120-146.
- 김중섭 외(2017).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국립국어원.
- 김한샘(2011). *한국어 속어 연구*, 한국문화사.
- 김현진(2015). “한국어 교육용 관용 표현 연구: 주제 및 기능과의 연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문금현(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육”, *이중언어학* 15, 이중언어학회, 207-233.
- 문금현(1999). *국어의 관용표현 연구*, 태학사.
- 박근희(2018).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인지언어학 기반 관용표현 교육 연구”, 세종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박경은(2012). “태국어 신체 어휘 의미의 은유적 확장-므(손)의 다의성”, *동남아연구* 22(1),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127-149.
- 손혜진임형옥공하림(2018). “TV 드라마 대본을 통한 한국어 관용표현의 사용 맥락 고찰”, *학습자중심교과교육* 18(17),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319-340.
- 송현주(2011). “국어 구조와 의미 간의 동기화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송현주(2017). “의식주 관련 한국어 관용 표현의 동기화 양상”, *한국어 의미학* 58, 한국어의미학회, 185-209.
- 신희삼(2013). “한국어 어휘 교육에 관하여-외국인 학습자에 대한 관용어 교육을

- 중심으로-”, *언어학* 21(4), 대한언어학회, 245-264.
- 오은화(2019) “중급 한국어 어휘 학습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연세대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
- 유해준·손경애(2012). “한국어교육용 관용표현 제시 방안: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정보학* 14(2), 한국어정보학회, 69-87.
- 이미영(2012). “A Comparative Study on Animal Figurative Speech in English and Korean”, 경북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임지룡(2008).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 임지룡(2018). *한국어 의미론*, 한국문화사.
- 임지룡(2012). “현대 국어 동물 속담의 인지언어학적 가치론”, *국어교육연구* 50, 국어교육학회, 377-404.
- 임지룡·송현주(2018). “동기화의 개념과 유형”, 임지룡 외, *동기화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3-68.
- 임지선(2012). “한·태 동물관련 관용어 비교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경은(2009). “Metaphorical conceptualization of animal idioms in English”,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영어과 석사학위논문.
- 장동은(2009). “한국어 교육용 관용구 목록에 대한 연구: 현대 국어 코퍼스 및 교재 분석을 바탕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
- 정유남·최창원(2020).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감정 관용표현의 교수 학습”, *어문론* 82, 중앙어문학회, 417-450.
- 조남호(2002).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국립국어원.
- 최문진(2014). “태국인 초급 학습자를 위한 언어문화 교육 방안-마음 관련 관용표현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한송화(2015).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4단계)*, 국립국어원.
- 홍사만(2008). *국어 의미분석론*, 한국문화사.
- Lakoff, G. & M. Johnson(1980/2003).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ibbs, R. & J. E. O'Brien(1990). “Idioms and mental imagery: The metaphorical motivation for idiomatic meaning”, *Cognition* 36, 35-68.
- Gibbs, R.(1994). *The Poetics of Mind: Figurative Thought, Language, and*

- Understand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나익주 옮김(2003).  
*마음의 시학: 비유적 사고 언어 이해*, 한국문화사.)
- Gibbs, R.(2007). "Idioms and formulaic language". In Geeraerts & Cuyckens.  
eds., *The Oxford Handbook of Cognitive Linguistics*, 697-725,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oon, R.(1998). *Fixed Expressions and Idioms in English*, Oxford: Clarendon  
Press.
- Nunberg, G., I. Sag, & T. Wasow(1994). *Idioms*, Language 70(3), 491-538.
- Sornig, Karl.(1988). "Idioms in language teaching". In Werner Hüllen, and  
Rainer Schulze(Eds.), *Understanding the Lexicon: Meaning, Sense and World  
knowledge in Lexical Semantics*. Tübingen: Max Niemeyer: 280-290.

## [ 초록 ]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태국어 동물명 관용표현의 의미를 분석하여 한국어 교육에 적용하는 것이다. 관용표현은 사회·역사·문화적인 배경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언어 교육을 위한 표현이자 문화 교육을 위한 표현이 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모국어 화자들은 말을 배우는 시기부터 자연스럽게 비유적인 의미와 비유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표현들을 습득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비유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와 표현들은 상당히 학습하기 힘든 내용이다. 모든 의미를 배우고 암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계적인 관용표현 수업을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언어와 단계를 분석하고 한국어와 대조하여 초급부터 고급 단계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어에서 고빈도로 사용되는 10가지 동물(개, 고양이, 호랑이, 소, 닭, 돼지, 쥐, 개미, 개구리, 곰)의 의미를 대조하여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다섯 가지 동물(호랑이, 소, 닭, 돼지, 곰)에 대해 한국어와 태국어의 관용표현에서 나타나는 의미 특성을 분석하고 태국인 학습자들에게 제시할 교수 방법을 제안했다. 한국과 태국은 농사를 지으면서 가축을 기르는 문화를 형성하면서 불교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다. 따라서 농사와 관련된 소나 집에서 기르는 개, 닭, 돼지 등의 동물을 친숙하게 느끼고 관련된 관용표현을 많이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하지만 차이점도 있었다. 가령, 태국어에서는 ‘소’가 싸움을 즐기는 난폭한 사람으로 개념화되거나, ‘돼지’가 다루기 쉬운 일로 개념화되었다. 또 한국어에서는 위엄, 권위의 의미로 사용되는 ‘호랑이’도 태국어에서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바람둥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두 언어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관용표현 학습하기 위해서는 초급 단계에서부터 동물명의 비유적인 의미를 학습할 것을 제안했다. 초급에서는 비유적 의미로 쓰이는 동물명을 문법 학습과 독립적으로 제시하고, 중급 단계에서는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구와 문장 단위의 관용표현을 제시하였다. 고급 학습자들은 문화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관용표현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관용표현, 의미, 한국어 교육, 비유적 의미, 한국어, 태국어, 초급, 중급, 고급

〈 Abstract 〉

Teaching Plan for the Meanings of Idiomatic Expressions  
Involving Animal Names : Focusing on Thai Learners

Kim Jung-a (University of Malaya)

Titawat Angkula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meanings of idiomatic expressions involving animal names in the Korean and Thai languages for application in Korean language teaching. Idiomatic expressions are expressions useful in both language and cultural teaching, as they simultaneously feature a social, historical, and cultural background. In general, native speakers learn how to use the figurative meaning and expressions that include such meaning naturally when learning how to speak. However, it language learners to learn figurative words and expressions and memorize every meaning. Therefore, to produce systematic lessons for idiomatic expressions, teachers must present expressions starting from the beginner level to the advanced level organically by analyzing the learners' level of Korean. Therefore, to propose a teaching method for Thai learners, this study analyzes the semantic characteristics of idiomatic of Korean and Thai expressions, specifically with regard to the 5 animals (tiger, cow, chicken, pig, and bear) that demonstrate the greatest disparities, from among the 10 animals (dog, cat, tiger, cow, chicken, pig, mouse, ant, frog, and bear) used with the highest frequency in Korean. Korea and Thailand share a common cultural background of Buddhism, farming, and raising livestock. Therefore, both cultures are familiar with such animals related to agriculture as cows, dogs, chickens, and pigs, and both have many

idiomatic expressions related to them; however, there are also significant differences. 소 used for a violent person who enjoys fighting, and 도둑고양이 “stray cat” signifies “burglary” rather than the cautious movements of a cat. Furthermore, in Korean, 호랑이 “tiger” has connotations of dignity and authority, a meaning shared in the Thai, in Thai, the word also carries the negative meaning of “womanizer.”

Next, to systematically learn idiomatic expressions, it was considered necessary to teach the figurative meanings of animal names starting at the beginner level. At the beginner level, animal names with figurative meanings are presented separately from the grammar lessons, while idiomatic expressions in phrases and sentences that can be understood through knowledge of the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are presented at the intermediate level. Advanced learners are presented with idiomatic expressions involving the cultural and historical background.

Keywords : idiomatic expressions, meaning, figurative meaning, Korean language teaching, Korean language, Thai language, beginner, intermediate, advanced

이 논문은 2020년 10월 10일에 접수 완료되어 2020년 10월 27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20년 11월 10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